“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십니다 ”

■ **이종윤 원로목사**

그리스도인은 부패한 옛 본성 즉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듭난 사람이다. 기질상 노함과 분을 제거하고, 언어상 훼방과 욕설과 거짓말을 끊어 버리고, 원리상 죄의 몸은 죽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된 자아(自我)를 가리킨다.

새 창조함을 입은 사람은 죄 문제에서 풀려나 도덕적인 변화를 경험한 내면적 변화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대인관계에서도 새롭게 변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즉 인종적 차별이 없고 헬라파나 무할례파 즉 종교적 구별이 없고 야만인 스쿠디아인이나 헬라어를 구사하는 헬라인을 구분치 않는다. 종이나 자유인 즉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로 인간을 나뉘는 것이 없다. 오히려 이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하셨다. 심지어 천국에서는 성정도 없다 한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유일한 표지는 인종, 종교, 문화, 경제, 성별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에 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곧 만유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본질상 모든 것의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것은 곧 거룩함, 성결함, 순전함, 영원함 진실로 그 분이 모든 것의 전부이시고 그분을 소유한 각 개인도 그렇다. 이 보배같은 주제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독자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고 사는 복을 누리시기 바란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다 하지 않았다. 새사람으로 새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신다고 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다. 약간은 인정하나 크게 인정하지 않는 이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시 하지만 그분이 전부가 되신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고백한 이로 보기엔 어렵다. 칭의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기 의로 덮으신다. 성화나 견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도 중보자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가 없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보혜사 · 변호인이 필요하듯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 만유시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 불같은 화살을 쏘고 죽이려 덤벼드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패시요 갑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탄을 정복하신 우리의 만유시다. 세상과 싸울 때도, 시험이 와도, 가난과 질병이 덮쳐도,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가 와도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만유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채우시고 도우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차별을 넘어 만유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도, 우리와 우리 원수 사이에서도 만유이시며 우리 자신 안에서도 만유이시다.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리인으로 만유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대속자 그리스도가 우리 죄의 만유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없이 소망을 둘 분이 있는가?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없다.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통로로 보여 주신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보증이시고 만유의 총체시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은 시간과 영원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선물로 주셨다. 과거의 죄는 지워 버리고 현재의 필요는 채워 주시고 미래는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 필요의 만유시요, 바라는 것의 만유시며,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것의 만유시다.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탁월함을 나타낸다. 세상에는 좋은 약은 많이 있지만 만병통치약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 안전, 신성, 평화, 풍성, 아름다움, 치유, 도움, 위로, 정복, 생명, 승리, 영생이시다. 그리스도가 만유시라면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제국의 황제보다 부요한 자요, 그 분을 의심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책망해야 한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 격이 되었다고 두려워 말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호자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우리의 만유이시니 그 분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 입고 새사람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조국을 위해 기도하자.

-한국장로신문 2016년 3월 19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적인 수고와 기도의 참여 덕분에 서울교회 회복 이후 첫 번째 바자를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오늘은 10월 첫 주일입니다.

곧 시작될 2022사명자대회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1002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혜정,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옥(인도), 서광종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제32권 제40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22년 10월 2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 울 교 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

■ **예레미야 2:1-3**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의 감격과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인생의 모든 짐이 사라지고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은 듯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 49:15)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몰락해가던 유다왕국을 바라보면서 당시의 백성들과 예레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기들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걱정스럽고 의심스러웠습니다. 예레미야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지를 알려줍니다.

1. 서로 사랑했던 그 때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은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뜨겁게 사랑했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성막 위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군요.'라고 좋아했습니다. 저녁 어두워지면 불기둥이 그들을 비추었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압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목마르면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셨고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기억으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해방과 전쟁, 가난과 독재의 시절,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치 광야 같았습니다. 유일한 기쁨 희망 쉼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툭하면 불평하고 서로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세상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합니다.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가슴 뜨거운 헌신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광야 같았던 시절 그 때 그 사랑이 생각나고 나는 그 때가 그립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 사랑이 추억 속의 기억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추억이 오늘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2. 그 사랑 다시 한 번

오늘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사랑 다시 회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세속화 되어버린 까닭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5절)는 것이 그 답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는 바알 종교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바알은 생산의 신, 농사의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사 기술을 배우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민족들은 바알을 섬겨야 함을 강조했고 이에 미혹된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을 간직하기보다 물질의 욕심에 빠져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숭배에 빠져든 것입니다. 후에는 외교적 압력 때문에 주변국의 종교들을 도입해야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왕하 21:5-7)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나라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살기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2등, 3등이 되고 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사랑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요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거나 질책하시거나 배신감을 토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사랑이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Ⅰ	오전 9시	안용곤 목사	오윤걸 장로
Ⅱ	오전11시	조원영 목사	이민호 장로
Ⅲ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대상 16:8-10···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9(1절)···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24(시 46)···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맡 은 이
찬 송 Hymn ·····315(512)···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렘 2:1-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563(411)···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묵 도 ····· 다 함 께
성 시 ····· 마 22:37-39 ····· 인 도 자
찬 송 ····· 298(35) ····· 다 함 께
기 도 ····· 유성택 집사
찬 송 ····· 210(245) ····· 다 함 께
성 경 ····· 엡 4:11-15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바자결과보고 ····· 맡 은 이
설 교 ···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 ··· 설 교 자
* 찬 송 ····· 208(246)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수요예배

Ⅰ부 오전 11시 · 인도: 김익환 목사
Ⅱ부 오후 7시 ·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Ⅰ부: 이안순 권사 Ⅱ부: 문은영 권사
성 경 ····· 왕상 8:22-32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때"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 손달익, 안용곤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전지희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렘 2:2)		
수요Ⅰ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금주의 성구			
수요Ⅱ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남선교회 스데반회 연합 야회예배** / 3일(월) 오전 9시30분 수서역 6번 출구
2. **정기당회** / 5일(수) 수요 2부 예배 후 402호

◈ 알 림
1. **101호**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10분-11시
3. **403호**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후 12시10분
7. **603호**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30분-11시3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2. **세례식 신청 마감** - 금년도 네 번째 세례식인 10월 세례(입교, 유아세례)식이 10월 16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입교와 유아세례 신청기간: 9월 18일(주일)-10월 2일(주일)까지
*입교와 유아세례 문답 및 교육: 10월 9일(주일)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새가족소개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 결 혼
1. **한세희 군(한인상 집사, 김경희 권사의 장남)과 김가현 양(3교구 김지수 집사, 김순진 권사의 장녀) /**
10월10일(월) 오후 1시 더채플앳청담 채플홀 6층(02-421-1121) / 7호선 분당선 강남구청역 3-1번 출구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526명	412명	1,938명	450명	1,681 명

겨자씨운동

예수님은 천국의 외형적 확장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다. 겨자씨처럼 처음엔 작고 보잘 것 없지만 나중은 위대하고 세상을 지배할 것임을 가르친다. 천국은 그 나라의 왕되신 예수께서 비천한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서서히 확장되어 마침내 온 세상을 뒤덮었다.

하루의 짧은 순간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음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위대한 결과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작은 씨앗이 무성한 나무가 되듯 생명을 가진 복음은 반드시 성장한다.

성장하므로 세상에도 유익을 주는 겨자씨같이 오늘도 천국복음을 가진 교회가 성장하고 움직여 이 세상을 광명의 세계로 만드는 구원의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자.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끕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